

북한의 역사학과 현실과의 관계*

鄭 杜 熙

- I. 머리말
- II. 개화사의 구성과 서술
- III. 항일혁명투쟁과 주체사상의 탄생
- IV.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과 김일성의 역할
- V. 한국전쟁에 관한 서술과 북한의 현실
- VI. 북한의 역사학과 현실과의 관계

I. 머리말

역사학은 언제나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마련이지만, 북한의 역사학은 북한의 현 지배체제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북한 역사학에 대한 이러한 문제는 누구나 쉽게 감지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가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다루어진 적은 거의 없었다. 지난 몇 년간 북한 역사학의 여러 측면을 살펴오는 과정에서 필자도 북한 역사학과 현실과의 특이한 관계를 지적하기도 하였지만,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다.¹⁾

북한의 역사서술에 반영된 현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점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상고시대의 역사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서술에서 그들의 현실이 적극적으로 투영되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지만, 무엇보다도 개항이후의 근현대사 서술에 그들의 현실적 상황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북한의 가장 대표적인 개설서인 『조선통사(하)』(1987)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조선통사(하)』는 여기서 살펴서 살펴가자 하는 1987년판이 가장 최신의 것이다. 이 책은 주로 1876년 개항에서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까지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중심으로 북한의 역사학과 현실과의 관계를 검토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에서는 이 책 말고도 『현대조선력사』가 1983년도에 출판되어,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출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검토한 바로는 『현대조선력사』는 항일운동을 기점으로 현대사를 서술하고 있다는 점만 빼면 모든 것은 『조선통사(하)』의 1987년판과 다른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보다 최근에 출판되었으며, 현대사의 전단계라 할 수 있는 개항이후의 시대부터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조선통사(하)』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 이 논문은 1997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인문사회과학 중점연구)의 지원에 의해 연구, 완성되었음.

- 1) 북한의 역사학에 대한 필자의 연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조선통사』를 통해 본 북한의 역사인식」(『서강인문논총』 3, 1994)

「북한의 역사학 체계 개관」(『동아연구』 33, 1997.6)

「북한의 역사서술에 나타난 조선왕조의 유산」(『동아연구』 34, 1997. 12)

이런 연구를 진행하면서 북한의 역사학은 현실과 너무나 깊이 연루되어 있으며, 그런 의미에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지위를 이미 상실했다는 점을 여러 가지로 지적한 바가 있다.

II. 개화사의 구성과 서술

1876년 개항이후 전개되었던 개화운동을 북한에서는 부르조아 개혁 운동이라 정의하고, 1919년 3.1운동을 부르조아 민족주의 운동의 종말로 단정하고 있다. 개항 이후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 사회적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운동의 주체는 부르조아 계층이었으며, 이들이 일제의 강점 이후 3.1운동시까지 항일운동도 주도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3.1운동이 결국 민족의 해방을 이룩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 역사에서 부르조아 민족운동은 종말을 고하였다고 보았다.

이들은 부르조아라고 부르는 계층은 “봉건제도의 위기와 자본주의적 관계”가 성장하였던 “우리나라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세력으로서, “새로운 선진사상으로서 개화사상을 발생케” 하였다. 이런 개화사상은 “19세기 50년대부터 중인출신인 오경석, 류흥기와 애국적관료인 박규수 등에 의하여 낡은 봉건제도를 청산하고 자본주의제도를 세울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르조아사상조류로서의” 싹트기 시작하였으며, 1870년대와 80년대에 이르러 김옥균에 의하여 더욱 발전하였다는 것이다.²⁾ 이들은 특히 “김옥균은 류흥기, 박규수 등과의 접촉을 통하여 근대자본주의 문물제도에 대하여 쓴 책들을 탐독하게 되었고 실학사상의 긍정적 요소와 세계정세의 추세를 알게 되었으며 자체의 깊은 사색과 탐구과정을 거쳐 개화사상의 대표자가 되었다.”³⁾라고 하며 개화사상가로서의 김옥균을 높이 평가하였다.

개화파는 김옥균을 중심으로 개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충의계』라는 비밀결사형식의 조직을 만들었으며, 이 『충의계』는 “부르조아개혁운동을 담당수행하기 위한 비밀정치조직이었으며 우리나라 근대적정치조직의 첫 맹아”라고 평가하였다.⁴⁾ 그리고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이들

2) 『조선통사』(하) (1987년판), p.17.

3) 위의 책, p.17.

4) 위의 책, p.18.

개화파는 “어윤중, 김윤식 등 혁신관료들에게 영향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개화파의 지지자, 동정자로 돌아서게” 하여 “개화파는 정계에서 혁신관료들의 지지를 받게 됨으로써 개화운동을 적극 추진시켜나갈수 있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⁵⁾ 그러나 “내외반동”들의 방해로 평화적인 부르조아개혁을 추진시킨다는 것이 어렵게 되자 “폭력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개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1884년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고 주장하였다.⁶⁾

그리고 갑신정변에 대하여,

정변은 어떠한 혁명운동이든지 상층개혁운동의 방법이 아니라 역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도력인 근로인민대중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하며 적아간의 역량관계를 과학적으로 타산한 옳은 전략전술에 기초해야 승리할수 있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었다. 정변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조선에서 첫 부르조아개혁운동으로서 부르조아 민족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열어놓았다는데 그 역사적의의가 있다.⁷⁾

갑신정변을 이처럼 강조한 다음 북한에서는 1894년의 “갑오농민전쟁”에 각별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그러기에 그들은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교시를 직접 인용함으로써 북한의 역사서술에서 갑오농민전쟁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 주고 있다.

1894년에는 전라도 농민들이 봉건통치배들의 악정을 반대하여 농민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때에도 농민들을 비롯하여 애국적 군인, 선비들은 통치배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을뿐만아니라 국내의 혼란된 기회를 리용하여 기여들어온 일본침략운을 맞받아 피어린 투쟁을

5) 위의 책, p.18.

6) 위의 책, p.21.

7) 위의 책, pp. 23-24.

별렀습니다.⁸⁾

갑오농민전쟁은 “투쟁을 통하여 광범한 대중을 계급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더욱 각성시키고 반침략애국세력을 전반적으로 단력강화시켰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으나 “농민군은 그들 자체의 계급적제한성을 가지고있는데다가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에 의하여 지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전쟁은 봉건지배층들로 하여금 부패한 봉건통치를 심각히 재검토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으며 혁신정권의 출현과 새로운 개혁에 유리한 전제조건을 지어주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갑오개혁의 의의를 서술하였다.⁹⁾

북한에서는 “갑오개혁은 낡은 봉건제도를 청산하고 새로운 자본주의 제도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변이었다.”고 평가하고,¹⁰⁾ 이후 전개되는 “민권운동과 애국문화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¹¹⁾ 그러나 갑오개혁이 나라의 근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해도 일본군의 국내주둔은 나라의 독립과 사회적진보가” 이루어 질 수 없게 만들었으며, 이 부르조아운동이 “력사의 주체인 인민 대중에게 의거하지 않을 때는 승리할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어 이들은 1895-1896년의 반일의병투쟁사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1896년 이후에 전개된 독립협회의 활동을 “부르조아민권운동”이라 규정하였다. 즉 전국의 농촌지역에서는 농민들의 의병투쟁이 전개되고 도시를 중심으로 독립협회의 민권운동이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의병투쟁은 “유교적 『충군존왕』사상이 골수에 찬 봉건유생지휘성원들의 계급적 제한성” 때문에 실패하였으며,¹²⁾ 독립

8) 위의 책, pp.26-27.

9) 위의 책, p.33.

10) 위의 책, p.35.

11) 위의 책, p.36.

협회의 민권운동은 “혁명적인 지도력량의 통일적인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벌어진 자체의 제한성과 함께 미일침략자들의 압해 책동” 때문에 실패하였다고 보았다.¹³⁾

III. 항일혁명투쟁과 주체사상의 탄생

개화운동을 부르조아 개혁운동이라 정의한 북한에서는 3.1운동을 “부르조아민족주의운동”의 절정으로 보았다. 이들은 1919년 3월 1일을 “우리 민족이 자기의 자유를 위하여 고귀한 피를 흘린”날이라 한 김일성의 어록을 인용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⁴⁾ 그리고 3.1운동은 33인이 중심이 된 “독립청원운동”이라 규정하고,¹⁵⁾ 일제에 대한 적극적인 항거의 형태로 폭동성을 띠게 된 것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조선지방에서부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⁶⁾ 그리고 서북지방의 운동을 주도한 것은 김일성의 부친인 김형직이었으며, 이 때에 여덟살이던 김일성도 시위행렬에 참여하였다고 서술하였다.¹⁷⁾ 그러나 3.1운동은 일제의 무자비한 진압과 “민족주의자들”의 “투항변절”(p.77)로 실패하고 말았으며, 이로써 개항이후 개혁운동을 이끌었으며, 3.1운동시까지 민족운동을 주도하였던 소위 부르조아민족운동은 종말을 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3.1운동 이후 전개된 반일운동들도 모두 “대중속에 뿌리박지 못하고 모든 반일투쟁에서 심한 분산성과 자연발생성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평가하였다.¹⁸⁾

12) 위의 책, p.40.

13) 위의 책, p.42.

14) 위의 책, p.71.

15) 위의 책, p.72.

16) 위의 책, 73.

17) 위의 책, pp.73-74.

18) 위의 책, p.98.

일제시대에 항일운동이 제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김일성의 부친인 김형직이 1917년 3월 비밀결사인 『조선국민회』를 결성한 이후였으며, 이로써 “당시 질식상태에 처해있던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이 올바른 길을 따라 전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¹⁹⁾ 그리고 이후의 항일운동은 바로 이 김형직이 지도하고 이끌어 간 것으로 서술하면서, “조선국민회가 김형직선생님의 지도밑에 광범한 대중을 반일민족해방투쟁으로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은 민족주의영향으로부터 점차 벗어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²⁰⁾ 그러나 1926년경 김형직이 사망하자, “탁월한 지도자를 잃은 조선민족해방운동은 키를 잃고 사나운 폭파를 만난 듯배”와 같이 표류하였으나, (p.134) 이러한 민족수난의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시대의 절박한 요구와 민족의 념원을 지니시고 조선혁명운동의 진두에 나서게 “되어 조국해방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²¹⁾

김일성은 1926년 10월 17일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김일성은 “우리가 1926년에 조직한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로 이끌어내기 위한 전위조직이었으며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조직”이었다고 그 의의를 강조하였다.²²⁾ 그리고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세계에서 공산주의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기본 강령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p.137)

이후 김일성은 1926년 12월초 만주의 길림성으로 활동무대를 옮겼으며, “우리 나라의 첫 공산주의적소년혁명조직인 새날소년동맹”을 결성

19) 위의 책, p.103.

20) 위의 책, p.109. 사실 『조선통사』(하)(1987)을 보면 p.98에서 p.134까지는 3.1운동 이후 김형직이 반일운동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21) 위의 책, p.135.

22)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북한에서는 『 』로 줄여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하여는 위의 책, p.136 참조할 것. 또한 위에서 인용한 타도제국주의동맹에 대한 김일성의 발언은 위의 책, p.137 참조.

하였다.(p.138) 그리고 1928년 8월 28일에 김일성은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창립하였는데,(p.140) 이는 “조선혁명전반에 대한 령도를 실현해나가는 혁명적전위조직”이었다는 것이다.(p.141) 나아가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창립은 『ㄱ, ㄴ』로부터 시작된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투쟁의 새로운 전진과 우리 나라 청년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었다고 주장하였다.(p.141) 그러나 뿌리 깊은 사대주의사상을 극복하지 않으면 그들이 주장하는 조선혁명을 달성될 수가 없으며, “식민지반봉건사회의 조건에서 조선혁명은 반제적과업과 반봉건적과업을 동시에 해결해야 할 어렵고 복잡한 혁명이었으며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모든 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면서 강대한 일제와 싸워야 하는 류례없이 간고한 혁명”이었기 때문에, 김일성은 1920년대 말에 이르러 주체사상을 창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²³⁾ 이어서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당조직”을 결성하였으며(p.155), 이를 바탕으로 1930년 7월 6일에는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였다.(p.157) 그리고 이 조선혁명군을 중심으로 일제에 대한 무장투쟁이 전개될 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조선통사』(하)는 김일성이 지도하는 조선혁명군을 중심으로 만주지역에서부터 무장항일운동을 전개하여 점차 그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갔으며, 많은 지역을 일제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나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런 해방지역에서 1933년 3월에는 새로운 인민혁명정부를 조직하여 일종의 국가체제를 정비하게 되었다.²⁴⁾ 그리고 이러한 체제정비가 이루어지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조선인민혁명군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백두산 이남의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한 무장항일운동을 본격화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조선인민혁명정부를 중심으로 조선인민혁명군이 일제로부터

23) 위의 책, pp. 146-147.

24) 인민혁명정부에 대하여는 위의 책, pp.183-187.

무력으로 생취한 것이라는 논리로 서술되었던 것이다.²⁵⁾

IV.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과 김일성의 역할

『조선통사』에서는 1945년 조국의 해방을 이루어 낸 것은 김일성의 업적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나라를 찾아주시고 민족을 구원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개선을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에서 일찍이 있어본적 없는 대경사로 것처럼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수령님을 만나뵈을 그 날을 손꼽아기다렸다.(p.302)

그러므로 북한의 역사서술에서 해방이후의 역사에 있어서도 김일성 일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김일성은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란 연설에서 “우리는 승리한 성과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을 계속 앞으로 전진시켜야 하며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부강하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p.304) 그리고 1945년 10월에는 김일성의 주도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창립대회”가 열렸다.(p.309) 그리고 1946년 2월 8일에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열렸다.(p.315)

이렇게 조직을 정비한 김일성은 1946년 3월 5일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선포하고, “우리 당은 발걸이하는 농민들을 땅의 참된 주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서 토지개혁을 하며 몰수한 땅을 국가소유로 하지 않고 농민들의 개인소유로 할데 대한 방

25) 무장항일투쟁과 조선혁명정부의 결성, 주체사상의 확립 및 조선인민혁명군을 이끈 김일성의 활약상은 『조선통사』(하)(1987)의 p.134에서부터 p.299까지 한 페이지도 거르지 않고 서술되어 있다.

침을” 내놓았다고 천명하였다. (p.318) 소위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 개혁을 단행한 다음, 1946년 8월 10에는 『산업, 교통운수, 채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을 내어 중요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하였다. (p.321) 그리고 1946년 8월 28일에는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로동당의 창립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대중적당건설로선의 빛나는 결실이며 위대한 승리였다. (p.325)”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다음에도 북반부에는 소상품경제형태와 자본주의적경제형태가 적지 않게 남아 있었다. 이러한 경제형태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착취와 빈궁의 근원을 완전히 없앨수 없었으며 사회의 생산력을 낡은 생산관계의 구속에서 해방할수 없었고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계획적으로 빨리 발전시킬수 없었다.”²⁶⁾ 이에 김일성은 “민주주의적 선거를 통하여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을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 강화발전시키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47년 2월 17-20일 인민위원회대회가 열렸으며, 여기에서 “최고주권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가 창설되었으며, 2월 21-22일에는 북조선인민회의 제1차회의가 소집되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그리고 이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북한에 태어날 “첫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이었으며, 이의 수립은 북한에서 “사회주의에로의 진군의 역사적전환점으로 되었으며 이때로부터 우리 인민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임무를 수행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조선통사』는 기록하고 있다.²⁷⁾

이처럼 북조선인민회의 창설을 강조한 다음 북한에서는 조선인민군의 강화발전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들은 “정규무력

26) 위의 책, p. 389.

27) 이상 위의 책, 341.

을 건설하는 것은 해방후 완전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라고 하면서, “자체의 강력한 민족군대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사실상 완전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²⁸⁾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김일성은 1945년 11월 17일에 군사정치학교인 평양학원을 설치하였다는 것이다.²⁹⁾ 이를 바탕으로 “군사간부”를 양성하면서,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 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였다.³⁰⁾ 북조선인민회의에 이어 조선인민군을 창건함으로써 북한은 하나의 국가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김일성은 남북한을 망라한 “전조선정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기 위하여 1948년 8월 2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강행하였다. 그러나 남한의 사정은 북한과는 달랐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직접적 비밀투표의 방법에 따라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선거가 진행되어” 유권자의 99.97%가 선거에 참여하여 98.49%의 찬성투표로 대의원을 선출하였으나,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방해책동을 고려하여 2중적인 선거방법, 다시말하여 유권자들이 비밀리에 서명의 방법으로 인민대표를 선거한 다음 그 인민대표들이 북반부에 들어와 대표자대회를 열고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을 선거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인민들은 8월 20일현재 전체 유권자의 77.52%에 해당하는 673만 2,407명의 서명으로 1,080명의 인민대표를 선출”하였으며, 이 대표들이 황해도의 해주에 들어와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를 열어, “남조선인구 5만명에 1명 비례로 360명의 대의원을 선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에서는 1948년 8월에 남북한총선거의 승리로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전조선의 통일적인 최고립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³¹⁾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

28) 위의 책, p.352.

29) 위의 책, p. 353.

30) 위의 책, p. 353.

31) 이상은 위의 책 pp. 364-365.

께서는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북한 정부 창설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해방후 북한정권의 탄생에 대한 역사는 전적으로 김일성의 영도와 교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으며, 북한이 주도한 남북한 총선거 당시 이미 5월 10일자로 선거를 치룬 남한에서조차 6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북한정권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성을 지닌 정부라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런 역사서술에서 그들의 주장에 반대되는 그 어떠한 가능성에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부만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이며, 김일성은 모든 한민족의 유일한 영도자라는 주장뿐이었다.

V. 한국전쟁에 관한 서술과 북한의 현실

북한에서는 비극적이었던 한국전쟁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 이들은 전쟁의 기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합리적인 방안들을 거부하고 1950년 6월 25일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10여만의 괴뢰군은 일요일의 이른새벽 38도선 전역에 걸쳐 불의의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전선서부에서는 괴뢰수도사단 17련대가 태탄, 벽성 방향으로, 괴뢰1보병사단이 개성 부근에서 3개 방향으로, 괴뢰7보병사단은 련천지역에서 2개 방향으로 침공해들어왔다. 전선동부에서는 괴뢰6보병사단이 화천, 양구 방향으로, 괴뢰8보병사단은 동해안방향에서 쳐들어왔다.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불의의 무력침공을 감행한 적들은 해주, 금천, 철원 기타 여러 방향들에서 38도선 이북지역으로 1-2km까지 쳐들어왔다.³²⁾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조선통사』에서는 1950년 6월 25일 남한에서 모든 전선에서 대규모의 선제공격을 하여 전쟁이 일어난 것으로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남한의 선제공격에 대하여 김일성은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와 영예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들과 단호히 싸워야 합니다. 적들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에 우리는 정의의 해방전쟁으로 대답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결정적인 반격을 가함으로써 전쟁은 확대되었다.³³⁾ 이후의 모든 전쟁은 김일성이 직접 지휘하여 승리로 이끌었다고 주장하였다.³⁴⁾

이후 전쟁의 진행과정에서 북한이 계속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소련의 군사정책이나 북한에 대한 군사원조에 대하여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는 것이 대단히 이채롭다. 그리고 인천상륙작전 성공 이후 북한군의 패주를 “조선인민군의 전략적 후퇴”라 서술하고, 1950년 10월 북한이 연합군에 의해 압록강선까지 밀렸던 상황에 대하여도, “10월 하순 전선형편은 매우 긴장하였으며 우리 인민은 여전히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었다. 그러나 전반적군사정치정세는 바야흐로 적들에게는 불리하게 조선인민과 인민군대에게는 유리하게” 변하여 갔으며, “영웅적인민군대는 후퇴를 시작하여 두달도 못되는 기간에 강력한 반공작전을 전개할수 있도록 자기의 력량을 재편성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³⁵⁾

소련군의 원조와 참전에 대하여는 단 한줄도 언급하지 않았던 『조선통사』에서, 이 때의 중공군의 개입에 대하여는 “중국인민지원군의 조선전선참전은 력사적으로 맺어진 조중 두 나라 인민사이의 전통적인 우의의 발현이었으며 반제반민족해방투쟁에 대한 국제주의적지원의 산

32) 위의 책, pp. 403-404.

33) 위의 책, p. 404.

34) 이에 대하여 『조선통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계속하여 전쟁의 성격을 분석하시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수 있는 요인들을 지적하시였다”고 서술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끈 김일성의 지도력을 찬양하고 있다. (p. 405.)

35) 위의 책, p. 436.

모범”이라고 기록하였다.³⁶⁾ 그리고 중공군 참전 이후의 전쟁사에서는 “아군연합부대”의 활동에 대하여 잠시 언급하고는 있지만,³⁷⁾ 시종일관 이 전쟁은 김일성의 영도로 최종승리에 이른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말하자면 당시에 참전한 중공군이 전투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북한 군사력이 거의 의미가 없던 전쟁의 후반기에서도 조선인민군은 “주체전법”에 의한 군사활동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주체전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독창적인 전법을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시킨” 것이며 (p.465), “인민군부대들은 다양한 주체전법을 능숙하게 활용함으로써 진지방어의 적극성으로 높였으며 언제나 전선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⁸⁾ 그러므로 중공군의 참전은 북한과 중국의 우호관계를 입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김일성의 영도 하에, 김일성의 주체전법에 의해 전쟁은 수행되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1953년 7월 27일의 정전협정은 바로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³⁹⁾

『조선통사』에서는 한국전쟁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이 전쟁의 의의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역사적승리는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전기간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헤치시면서

36) 위의 책, p. 437.

37) 중공군의 참전과 전투에 대하여는 『조선통사』(하) (1987)의 pp.436-443을 참조할 것.

38) 위의 책, pp. 465-466.

39) 정전협정에 대하여는 『조선통사』(하)(1987)의 pp. 490-492를 참조할 것.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을 빛나는 승리에도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승리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가져다준 빛나는 결실이였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과 정부, 인민군대와 인민에게 그 어떠한 엄혹한 시련도 이겨내고 원수와 싸워이길수 있는 필승불패의 사상정신적양식을 안겨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이 있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계심으로 하여 전쟁승리의 모든 요인들이 확고히 마련될수 있었다.⁴⁰⁾

김일성이 주체사상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이끌었는데, 그들의 말대로라면 이 때에 와서 조국해방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이끈 것도 김일성과 그가 창시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때문이었다는 위의 인용문은 북한의 역사학이 북한의 현체제에 얼마나 철저하게 예측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현대사 서술을 알아보기 위하여 더 이상 노력할 필요성은 없다고 느낀다. 한국전쟁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승리를 거두었다면 그 이후의 역사는 이 주체사상의 전개과정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의 역사는 『조선통사』(하)의 제 6편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이라 제목한 부분에 정리되어 있다. 이 제6편은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제1장 3절의 제목이 “주체확립에서의 근본적인 전환. 당의 통일단결의 강화”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서술의 방향이 어떤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주로 1970년대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제7편은 「사회주의의 전면적건설을 위한 투쟁」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 그 제2장의 1절의 제목은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새로운 혁명로선. 당의 유일

40) 위의 책, p. 492.

사상체계 확립에서의 결정적전환”이다. 말하자면 1970년대에 이르러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립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80년대의 역사를 서술한 제8편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으며, 그 제2장의 2절은 “위대한 수령님 탄생 70돐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대정치축전. 주체사상과 주체의 당 및 국가건설리론의 심화발전”이라고 되어있다. 여기에서 검토한 『조선통사』(하)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1987년에 출판된 것이다. 바로 80년대에는 주체사상의 심화발전이 추구되는 시대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전쟁,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조국해방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주체사상은 1960년대, 1970년대를 거쳐 이 책이 출판되던 그 당시까지의 역사가 오로지 주체사상이 더욱 심화 발전되어 오는 과정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VI. 북한의 역사학과 현실과의 관계

지금까지 개항이후 1980년대까지의 역사를 서술한 북한의 대표적인 역사서 『조선통사』(하)권의 서술체계를 살펴보았다. 개항이후 3.1운동까지는 개화파, 혹은 부르조아민족주의자들이 개화운동 내지는 일제초기의 민족운동을 주도하였지만, 3.1운동 이후 지금까지의 역사는 김일성의 부친인 김형직의 활동을 그 시작으로 하여 김일성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 온 것으로 철저하게 윤색되었다. 이것이 북한 역사학의 실체인 것이다. 그리고 김일성과 주체사상은 그들이 서술한 온 민족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간이 지나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영생불멸”의 것이었다. 현재 북한의 체제를 생각할 때 이쯤 되면 북한 역사학은 현실과 그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상황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제 결론에 대신하여 북한의 역사학과

현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1. 관념의 역사학

이 글에서 살펴 본 바를 정리하면 개항 이후 현대까지의 북한역사서술은 철저하게 관념적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사상의 역할은 항상 중요시 되어 왔다.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고대에는 불교의 영향이 매우 강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유교사상의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었다. 이러한 사상체계는 당시의 국가적 이상과 결합되었을 뿐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나 유교를 모르고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역사나 조선왕조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사회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을 하나의 사상체계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유교적 윤리로 조선시대의 토지문제를 다 해결할 수도 없으며, 군사를 유지하고, 왕조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해결책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교적인 이념이 조선왕조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유교는 조선왕조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필요조건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북한의 역사서술을 보면 주체사상이라는 하나의 관념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 항일운동도, 조국의 해방도, 그리고 그들이 것처럼 강조하는 소위 해방전쟁이라는 것도, 나아가 한국전쟁 이후의 역사도 모두 주체사상이 전개되어 온 역사로 기록되었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

을 그토록 강조하였기에 이는 “영생불멸”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관념이 영생불멸이라면 이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며, 제아무리 사회가 변해도 그 효용성은 절대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어떠한 시대에서나, 어떠한 환경에서나, 또는 어느 인간집단에서나 주체사상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으며, 이 주체사상은 조국의 해방과 번영과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 주는 유일한 요인이었다.

북한의 역사서술에서도 시대에 따라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는 있다. 그러나 주체사상에 관한 한, 이것이 탄생한 이후에는 이의 가치가 영생불멸하게 되었으며, 주체사상이 탄생하기 이전의 전 역사는 주체사상이 탄생할 예비적 단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체사상은 더 이상 사상이 아니라 유일신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철저한 종교적 색채를 띤 것이었다. 그리고 극도로 단순화된 종교적 교리는 그 어떤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교집단에서는 사람들을 좁은 골방에 가두듯이 그 사람들의 관념도 오직 하나의 교리 이외에는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역사서술은 변화를 꾀적을 따라가는 역사에서 영생불멸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종교적 교리서와 같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관념만이 지배하는 북한의 역사학은 더 이상 역사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2. 개인숭배의 역사학

북한의 역사서술이 주체사상이라는 관념의 늪에 것처럼 깊이 빠진 것은 김일성 개인을 우상화하려는 정책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이 논문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의 근현대사는 오로지 김일성의 위대한 업적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이미 사망하고 지금은

그의 아들 김정일이 그 자리를 이어 받았지만, 김정일은 동시에 김일성의 분신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후에도 김일성이 북한을 지배한다는 말은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북한의 역사, 특히 『조선통사』(하)와 같은 근현대사에 있어서는 사회의 구성적 측면에 대하여는 한 대목도 기록된 바가 없다. 위로는 김일성이 있을 뿐이며, 아래로는 그를 따르는 인민대중이 있을 뿐이다. 어디에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서술되지 않았으며, 계층간의 갈등과 소유의 불균형, 또 이로 말미암은 사회적 갈등에 대하여도 일체 언급이 없다. 모든 인민은 김일성의 영도를 열렬히 따를 뿐이며, 김일성은 한치의 잘못도 없이 그를 따르는 백성을 이상향으로 이끌어 가는 존재였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냈다는 모세와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김일성 위에 그 어떤 상위 존재가 없다는 점에 있어서 김일성은 모세보다도 더 높은 존재였다. 그는 북한에서 강조하는 그 대로 민족의 태양인 존재였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살아 생전에 자신을 신격화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북한의 역사서술이 온통 그를 신비한 존재로 꾸미고, 모든 역사는 그의 가르침에 따라 전개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북한의 현실적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이었다. 북한에서는 오로지 하나의 정당이 주체사상이라는 오직 하나의 이념의 완성을 위해 존재하며, 이 모든 것은 김일성 한 사람의 영도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외부의 세계와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다. 이것은 세계가 그들을 봉쇄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외부로부터 자신을 격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역사서술에 나타나는 외부세계에 대한 기록은 거의 대부분 침략자에 대한 것이며, 이 침략은 모두 열렬한 인민대중에 의해 격퇴된 것이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외부세계와의 접촉은 항상 유익한 것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항상 적대적 관계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북한에서는 모든 외래적인 것은 곧 반민족적이며 반국

가적인 것이었다. 현대에 와서 한국전쟁 시에 소련과 중국의 원조를 받았어도 소련에 대하여는 언급도 없으며, 중국의 참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할 뿐이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역사인식은 그들의 국민들로 하여금 외부세계에 관심을 둘 필요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외부세계는 모두 사악하며, 잘 살던 못 살던 북한만이 살만한 곳이라는 점을 깊이 심어주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대외인식은 북한의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외부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거꾸로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역사서술을 보면 북한은 온통 사악한 세상에 둘러 쌓인 외로운 섬처럼 느껴진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그들이 쌓아놓은 방파제는 무너져 버릴 것이며, 그것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이 어렵고도 고난에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지전능하고 초월적인 신비한 구세주의 출현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김일성은 그들의 구세주인 신이요, 그의 주체사상은 영생불멸의 성경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김일성을 신격화할 정도로 개인숭배가 고도로 체계화 된 북한에서는 합리적인 이성이 학문의 세계를 지배한다기 보다는 학문과 이성을 초월한 종교적 가치만이 진정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의 근현대사 서술이 철저하게 김일성의 위대성과 주체사상의 신비한 힘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종일관한 것은 이러한 북한의 현실 속에서는 차라리 당연한 것이었다. 전지전능한 신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듯이, 영생불멸한 신의 계시 앞에서는 모든 인간 이성의 활동은 그에 종속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에는 우리가 말하는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최근 남북관계가 활발하게 논의되면서 사회의 일각에서는 학문적 교류가 정치적 교류에 앞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는 주

장이 제기되곤 한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정치적 문제는 잠시 접어 두고 비교적 남북한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서로의 공통점이 많은 학문의 세계에서 대화와 신뢰를 쌓아 두는 것이 남북관계의 진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희망 때문이다. 그리고 고고학을 포함한 전통시대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리있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에 완전히 종속된 북한의 역사학과 다양한 역사관에 의해 서술되는 남한의 역사학 사이에 어떠한 실질적 대화가 가능할 것인가? 가능한 것이 있다면 과거에 우리나라를 침략한 외적에 대한 연구라든가, 아니면 역사의 진전에 따른 사회발전에 관한 것들이 공통의 관심사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17, 8세기의 사회발전과 관련하여 남북한 학자들의 대부분은 이 시대에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발전하였음을 입증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모두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역사 자체·내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비슷한 연구경향을 펼 수 있는 분야에서조차도 남북한 역사학의 대화는 일방적이지 않는 한 생산적인 것이 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을 필자는 하려는 것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쓰여질 수밖에 없는 북한 역사학의 근본이 대화를 통해 수정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철저하게 현실적 체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북한의 역사학이 학문적 오류를 인정하기를 바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의 역사학과 교류를 할 수만 있다면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되 그 결과에 큰 기대를 걸지는 말자는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역사학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는 북한의 각급 학교 역사교과서나 각종 역사서를 제대로 구비한 도서관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역사학에 대하여도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다. 북한역사

학에 대한 보다 깊고 체계적인 연구를 저해하는 이러한 원시적인 요소들이 빨리 시정되어 그에 대한 우리들의 학문적 성과가 쌓여간다면, 미래의 남북관계의 진전에 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역사학자들이 몸담고 있는 현대로부터 먼 과거의 일에만 학문적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며, 현실을 외면하고서 진정한 역사학은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일면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관심은 역사가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여지가 훨씬 크다는 점을 항상 고려에 넣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현대사 서술이 실은 그 이전의 역사서술 보다도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한 사회의 지배력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권력이 현대사의 서술에 적극 개입한다면 그런 역사서술은 왜곡될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현대사에서도 그 예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다.

북한의 근현대사 서술을 검토하면서 이들이 단지 그들의 현실을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는 차원을 넘어서 실재하지 않는 역사를 새로 만들어 내는 차원에까지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철저한 자기암시에 빠져 이런 거짓을 진실로 맹신하고 있다는 놀라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어느 특정한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역사서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처럼 허구의 역사를 만들어 내는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역사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관념에 종속되어 실재와 유리될 때, 그 사회나 집단이나 개인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각성이 북한의 역사학을 대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이 아닐까 한다.